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8월 7일
제19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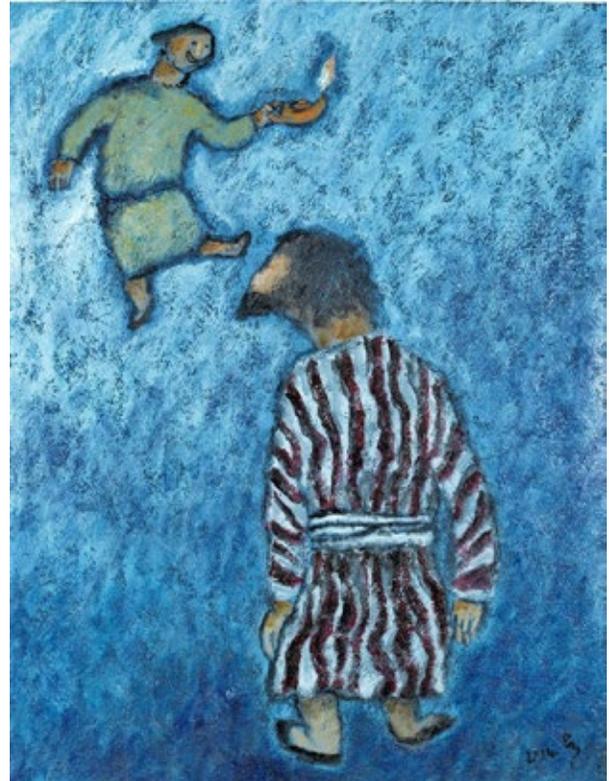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34-37)



〈행복한 종〉, 김옥순 수녀 작

연중 제19주일 (다해)

제 1 독서 지혜 18,6-9 |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화답송 시편 33(32)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서 히브 11,1-2.8-19 <또는 히브 11,1-2.8-12>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루카 12,32-48 <또는 루카 12,35-40>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²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³³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쫓이 쫓지도 못한다.

³⁴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³⁵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³⁶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³⁷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³⁸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³⁹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⁴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⁴¹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⁴²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즐거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⁴³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⁴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⁴⁵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⁴⁶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⁴⁷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⁴⁸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복음 묵상

로마 제국에서 부유한 도시였던 폼페이와 허르쿨레스의 어떤 프레스코화에는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종들은 서서 허리를 숙이고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동방 교회의 어떤 프레스코화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맨발의 예수님께서 식탁의 맨 끝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맨발은 종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오히려 맨 끝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도의 그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현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고 자기 집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몰랐기에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아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으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해성사는 신자도 사제도 깨어 있게 하는 삶의 좋은 방식입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으라는 말씀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언제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오셨지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해서 그분을 알아 뵈지 못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삼시다. <정용진 요셉 신부>



“팔로틴 수도회의 미션”

팔로틴 수도회 프란시스 마리아다스 신부

우리는 Pallottines 수도회입니다.

가톨릭 사도직 협회, 로마 사제 성 Vincent Pallotti에 의해 1835년에 설립된 수도회입니다. 그는 로마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도직 활동을 수행했으며, 병자,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야간 학교를 통해 교육합니다.



St. Vincent Pallotti
The Founder of
the Society of the Catholic Apostolate

지난 187년 동안 Pallottines은 널리 선교와 사목을 펼쳤으며 6대륙의 45개국에서 교구, 학교, 병원, 선교, 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촉구된 더 많은 자선 활동에 봉사했습니다 (2Cor 5:14).

Pallottines는 1951년에 인도에 왔고 인도에서 더 성장했습니다. 2020년 1월 6일에 인도 Tamilnadu의 Pallottines는 독립된 관구가 되었고 “Our Lady of Good Health” 라는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관구는 오늘날까지 99명의 사제와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50명 이상의 학생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구는 젊고 성장하는 관구입니다.

설립자 St Vincent Pallotti로부터 영감을 받아 본당의 사목, 사회 사도직,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목과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실시합니다.

여성 권한부여 프로그램으로 여성에게 재봉, 패션 디자인 및 미용사 과정과 같은 숙련된 작업을 가르쳤습니다.

치유 사역 -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AIDS 환자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집을 짓고 욕실과 화장실을 만들어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그에 따른 폐쇄 기간 동안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물, 야채, 기름 및 위생 키트와 같은 식료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치유 사역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아우르베다 치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만과 스리랑카와 같은 해외 선교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선물은(도움은)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쓰일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도록 지원하고,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을 교육하고, 자조 그룹을 통해 여성과 과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AIDS 센터, 나병 및 병원과 같은 치유 사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러한 선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합니다. 저희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사제 직무와 선교 사업에 투입된 그분의 신성한 자비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 대만, 스리랑카에서 더 많이 선교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미션 수행에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희망해 봅니다.

우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pallotines.org>를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상 한국학교 교사들 제 40회 학술대회 참가

김정선 교감 한국 교육부 장관 표창, 황재인 학생 백범 일지 독후감 대회 백범 통일상 수상



하상 한국학교 교사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도약하는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진행된 비대면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된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제 4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변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한국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김정선 교감은 한국의 교육부장관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폐회식에서는 황재인 학생이 백범 일지 독후 감상문 대회에서 백범 통일상을 수상하였다.



워싱턴 하상한국학교
황재인



힘들어도
기쁘게 살아가는 일
괴로워도
그분께 의탁하는 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내려주신
이 약속이
그분 축복의
전부입니다.

-김태진 신부님의 매일 묵상 중

그리스도의 표징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랑이
되십시오
광 3. 15
(바오로딸 콘텐츠)

1 세계선교를 위한 특별헌금(8월 7일)

- 알링턴 교구에서는 매년 세계선교를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 이번 해 우리 본당은 **Our lady of Good Health Provincialate Pallottine Fathers and Brothers** (팔로틴 수도회/인도)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 지원은 미사, 성사, 종교 교육과 같은 신앙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사목 서비스는 물론 음식, 주거 및 의료와 같은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돕습니다.
- 팔로틴 수도회 프란시스 마리아다스 신부님께서 오셔서 8월 7일(일) 2차 헌금을 하십니다.

- 체크로 기부할 경우 : SPCC나 MCP로 해주십시오.
 - e-giving :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our-lady-of-good-health-provincialate-pallottine-fathers-and-brothers/>

2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8월 10일(수) 오후 7:30
- 주제 : '통일과 분열'(솔로몬과 남방 왕들) / 열왕기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3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일시 : 8월 15일(월) 오후 7:30

미국 천주교회의 의무 축일에는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대축일, 부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마리아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의무 축일인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마리아 대축일을 제외한 의무 축일이 만일, 토요일 또는 월요일 중에 위치하게 되면, 그 의무 축일은 그 해에 의무 축일로 지내지 않습니다.

이번 성모승천 대축일(8월15일)은 월요일로, 의무 축일은 아니지만 신자로서 거룩하게 지내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의무 축일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7일(일) 오전 11:30 (B-1,2)

5 유아세례

- 일시 : 8월 13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8월 14일(일) 오전 11:30 (B-3,4)

7 꼬미시옹 월례회의

- 일시 : 8월 14일(일) 오후 1시 (B-3,4)

8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 - 6학년
- 신청 : 8월 14일(일)까지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9 대부모, 대자녀 신앙으로 인도하기 프로젝트

대부모는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모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새 신자도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 대부모와 대자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
- 대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 새 신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 일시 : 8월 7일(일), 8월 14일(일)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
- 문의 : 교육부 (703) 627-1932

10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th-12th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11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신청 : 8월 7일(일) - 8월 28일(일) 2시 미사 전, 후 (하상관 로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3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후보 선발 미사

- 일시 : 8월 13일(토) 오전 10:30
- 장소 : St. Elizabeth Ann Seton Parish
- 다니엘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중에 기억해 주세요.

14 2023년 본당 달력광고 접수

- 2023년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격 \$600, 선착순)
- 2023년도 본당 달력은 문화부 협조로 본당 활동 사진으로 제작합니다.

15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 및 체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며, 체육관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휴가 때의 기도

이해인 수녀

바쁘고 숨차게 달려오기만 했던 일상의 삶터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쉼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축복하시는 주님

넓디 넓은 바다에서는 끝없이 용서하는 기쁨을 배우고 깊고 그윽한 산에서는 한결같이 인내하는 겸손을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하십시오.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31일(연중 제18주일)

주일 헌금	\$ 6,798.00
교무금	\$ 6,085.00
교무금(신용카드)	\$ 1,870.00
감사 헌금	\$ 160.00
온라인 봉헌	\$ 2,900.00
합계	\$ 17,81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8월 11일(목) 오후 5:00-6:00
- 8월 12일(금) 저녁 8:00-9:00
- 8월 14일(일) 오전 6:00-7:00

- 주일 강론
- 김대우 모세 신부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눈을 감아 너에게로 가는 시간"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